

# “정해영 너마저!” … KIA 뒷문 ‘불안’



KIA 타이거즈의 뒷문 고민, 시간이 약이 될까?

갈 길 바쁜 KIA는 후반기 시작과 함께 불펜 고민에 빠졌다. 일단 부상으로 장현식과 전상현

필승조 두 명이 동반 이탈했다. 전상현의 긴 공백이 예상되는 가운데 마무리 정해영까지 흔들리고 있다.

전반기 마지막 3경기에서도 정해영은 진땀을 흘렸다. 한화와의 홈 3연전에 모두 나온 정해영은 7월 8·9일 김호영과 이우성의 특급 수비로 두 차례 불른 세이프 위기를 넘기면서 극적인 세이브를 기록했다.

하지만 10일에는 위기를 넘지 못했고, 전상현이 투입돼 경기를 마무리했다.

이후 정해영은 22일 롯데전에서 3점의 리드를 지키면서 세이브로 후반기를 기분 좋게 열었다.

팀의 대승-대패로 마운드에 오르지 못했던 정해영은 27일 NC전에서 소방수 역할을 했다.

9-1로 앞선 9회초 김재열이 제구 난조로 3실점을 하는 등 무사 만루에 몰리자 정해영이 급히 투

장현식·전상현 부상으로 이탈 마무리 정해영까지 ‘흔들’

뒷심 싸움에 밀려 잇따라 패배

입했다.

정해영은 양의지를 중견수 희생플라이로 돌려 세운 뒤 헛스윙 삼진과 좌익수 파울 플라이로 이닝을 끝내고 시즌 24번째 세이브를 수확했다.

30일 SSG전에서 전상현이 팔꿈치 이상으로 갑자기 마운드에서 내려오자 정해영이 투입돼 남은 아웃카운트를 처리했지만 경기는 5-7패. 31일에도 2-3으로 뒤진 9회 뒷심싸움을 위해 등판했지만 경기는 KIA의 패배로 끝났다.

그리고 지난 2·3일 한화전에서 정해영은 울고 웃었다.

2일 4-4로 맞선 9회말 정해영은 첫 상대 하주석에게 2구째 포크볼을 공략당해 끝내기 패전이 됐다.

3일 6-3의 리드에서 나와 이번에는 하주석을 삼진으로 잡는 등 25번째 세이브는 올렸지만 과정이 매끄럽지는 못했다. 선두타자 정은원에게 중전 안타를 맞았고 볼넷 2개도 허용하면서 진담 승부

를 했다.

그리고 6일 두산전에서 악몽의 8회를 보냈다. 4-1로 앞선 8회초 윤준현이 투 아웃을 만들었다. 윤준현의 투구수가 12개에 불과했고, 3점의 리드가 있었지만 예상과 달리 정해영이 8회 2사에서 빠르게 마운드에 투입됐다.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왔다.

정해영이 첫 타자 안재석에서 던진 4구째 포크볼이 우중간 담장을 넘어갔다.

김재호에게는 중전안타를 맞으면서 2사 1루, 정수빈과의 승부에서는 4구째 직구가 우측 담장을 넘어갔다. 정수빈의 올 시즌 첫 홈런이자 동점 투런포.

1회 3점을 뽑으면서 리드를 지켜왔던 KIA는 이 홈런으로 승기를 내줬다.

정해영은 9회에도 볼넷, 중전 안타로 2사 1·2루에 몰렸고, 허경민에게 2타점 2루타를 맞으면서 결국 강판됐다.

박준표가 이어 나왔지만 안재석의 1타점 2루타가 나오면서 정해영의 기록은 1이닝 5피안타(2피홈런) 1볼넷 6실점이 됐다.

후반기 7경기에서 5.1이닝을 소화한 정해영은 9피안타(3피홈런) 3볼넷 4탈삼진 7실점으로 11.81의 평균자책점과 함께 2패 3세이브를 기록

하고 있다.

정해영이 흔들리고 있지만 묘수가 없다. 가장 페이스가 좋았던 전상현은 부상으로 빠졌고, 부상에서 돌아온 박준표는 아직 완벽한 모습이 아니다. 선발에서 불펜으로 이동한 한승혁도 고질적인 제구 난조로 삼진을 승부를 하는 등 유일한 좌완 이준영과 좋은 흐름을 보이는 윤준현의 어깨가 무겁다.

결국 선발진의 이닝과 타석의 집중력이 위기 탈출을 위한 키가 될 전망이다.

토마스 파노니와 셀 놀린으로 안정세로 접어든 선발진이 최대한 많은 이닝을 끌고 가야 한다. 또 잔루가 쌓이고 있는 만큼 타자들의 집중력과 벤치의 승부수가 필요하다.

한편 김중국 감독은 7일 두산전에 앞서 “투수들 부상자가 나오고, 선수들이 무더위에 지쳐있는 것 같다”며 “(전날) 가장 믿을 만한 마무리인 만큼 주자 없는 편안한 상황에서 내보냈다. 안재석, 정수빈이 홈런을 많이 치는 유형의 선수는 아닌데 홈런을 맞으면서 데미지가 있었던 것 같다. (9일 휴식일까지) 3일 동안 대기 잘해서 세이브 상황 되면 다시 잘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동성고 콜드승 대통령배 8강 진출

구리 인창고 11-1 꺾어

광주동성고가 대통령배 8강에 진출했다. 동성고는 지난 6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제56회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 16강전에서 구리 인창고를 11-1, 8회 콜드승으로 꺾었다.

장단 15안타로 승리를 만든 동성고는 9일 오후 3시 대구고교와 준결승 진출을 다툰다.

2회초 동성고가 선두타자 김종범의 좌측 2루타로 기회를 잡았다. 정우빈의 희생번트로 2루에 간 김종범은 서하은의 중전 직사타 때 홈을 밟았다.

3회 1사에서 정우석과 김종범의 연속안타로 분위기를 끌어올린 동성고는 정진영의 2타점 3루타로 3-0을 만들었다.

선두타자 서하은이 출루한 4회에도 1점을 더한 동성고는 6회에는 상대 실책을 더해 5-0으로 앞서 갔다.

5회말 2사 3루에서 나온 김현우의 적시타로 1점은 내렸지만 8회초 동성고가 대거 6점을 뽑아내면서 승부를 끝냈다.

1사에서 상대 유격수 실책으로 기회를 잡은 동성고는 2사 2루에서 나온 서하은의 적시타로 6-1을 만들었다. 이어 박민혁, 정우석, 김종범의 안타와 상대의 제구 난조로 4개의 사사구를 얻어내는 등 빅이닝을 만들면서 11-1 콜드승을 장식했다.

김승민이 선발로 나와 4이닝을 무실점으로 처리했고, 심재준과 이송찬이 남은 4이닝을 1실점으로 막으면서 동성고의 승리를 지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황희찬 선제골 도움

EPL 올버햄프턴 개막전  
팀은 리즈에 1-2 역전패

황희찬(26·올버햄프턴 원더러스)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개막전에서 시즌 첫 공격포인트를 기록했으나 팀은 역전패를 당했다.

황희찬은 지난 6일 영국 리즈의 엘러드 로드에서 킥오프한 2022-2023시즌 EPL 1라운드 리즈 유나이티드와 원정경기에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85분을 뛰면서 전반 6분 다니엘 포텐세의 선제골을 돕는 등 활약했다.

하지만 올버햄프턴은 1-2로 역전패했다.

지난 시즌 리그 30경기에서 5골(1골)을 넣으며 한국인 EPL 데뷔 시즌 최다 골 기록을 작성한 황희찬은 이날 EPL에서의 두 번째 시즌을 시작했다.

주축 스트라이커인 라울 히메네스가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에서 이번 시즌 11번을 달고 뛰는 황희찬은 개막전 선발 출전으로 새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이날 황희찬과 함께 파울루 네투와 포텐세가 올버햄프턴의 공격진을 구성했다.

특유의 저돌적인 돌파를 앞세운 황희찬은 좌우 측면은 물론 미드필드까지 내려와 연결 고리 역할까지 하며 팀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경기 시작 6분 만에 도움으로 시즌 첫 공격포인트도 기록했다.

역수 상황에서 네투가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골 지역 오른쪽에 있던 황희찬이 헤딩으로 떨어뜨려 주자 포텐세가 골문 정면에서 오른발 발리슛으로 선제골을 뽑았다.

황희찬은 전반 21분 후반에서 한 번에 넣은 공을 살짝 띄워 상대 수비수를 따돌린 뒤 왼발 슛까지 해봤으나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다. 그리고 3분 뒤 로드리고 모레노의 오른발 슛으로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올버햄프턴은 후반 추가 시간 네투의 크로스를 황희찬이 감각적인 원터치 패스로 연결해 레안더르 덴동커가 상대 골키퍼와 일대일로 맞서는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잡았다. 하지만 덴동커의 슈팅이 골키퍼에게 막혀 결국 전반을 1-1로 맞선 채 마무리했다.

후반 들어서도 올버햄프턴이 주도권은 쥐었으나 후반 12분 코너킥에 이은 덴동커의 헤딩 슛이 골키퍼 선방에 막히는 등 추가골 사냥에 실패했고, 오히려 후반 29분 리안 아이트-누리의 자책골로 역전당했다.

황희찬은 후반 40분 캠 켈벨과 교체됐고, 올버햄프턴은 뒤집힌 경기를 끝내 되돌리지 못했다.

/연합뉴스



손흥민이 6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사우샘프턴과의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개막전에서 1-1로 맞선 전반 31분 에릭 다이어의 역전골을 도운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 손흥민 결승골 도움 … 토트넘, 개막전 승리

EPL 1R 사우샘프턴 4-1 꺾어

손흥민(30)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새 시즌 개막전부터 공격포인트를 올리며 소속팀 토트넘의 대승에 일조했다.

토트넘은 지난 6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2023시즌 EPL 1라운드에서 사우샘프턴에 4-1로 크게 이겼다.

풀타임을 소화한 손흥민은 1-1로 팽팽하던 전반 31분 센터백 에릭 다이어의 역전 결승골을 도우며 시즌 첫 공격포인트를 작성했다.

지난 시즌 EPL에서 23골을 폭발,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와 공동 득점왕에 오르며 아시아 축구사의 새 역사를 쓴 손흥민은 새 시즌 시작부터 도움을 올리며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1골 1도움을 올린 데얀 콜루세브스키가 토트넘에서 가장 돋보이는 활약을 펼쳤다.

지난 시즌을 4위로 마친 토트넘은 올 시즌 더 높은 순위를 욕심내기에 충분한 경기 내용을 보여줬다.

손흥민은 왼쪽에 배치됐다. 해리 케인이 중앙, 콜루세브스키가 오른쪽에서 손흥민과 함께 ‘공격 3각 편대’를 구성했다.

로드리고 벤타쿠르, 피에르에밀 호이비에르가 중원을 책임졌다.

좌우 윙백으로는 라이언 세세농과 에메르송이 배치됐고, 에릭 다이어, 크리스티안 로페로, 벤 데이비스가 스리백을 구성했다. 골키퍼 장갑은 위고 로리스가 썼다.

토트넘은 전반 12분 만에 먼저 실점했다. 사우샘프턴 무사 제네포가 왼쪽에서 에메르송

의 슬라이딩 태클을 피하며 띄운 크로스를 골지역 정면의 제임 워드프라우스가 오른발 발리슛으로 연결해 득점했다.

실점 뒤 공격의 고삐를 더욱 쥔 토트넘은 10분도 안 돼 동점골을 뽑았다.

전반 21분 세세농이 머리로 득점했다. 콜루세브스키가 오른쪽에서 세세농의 머리를 겨냥해 올린 왼발 크로스가 일품이었다.

역전골은 손흥민의 발끝에서 시작했다.

전반 31분 왼쪽에서 올린 손흥민의 크로스를 문전의 다이어가 다이빙하며 방향만 바꾸는 헤더로 마무리해 승부를 뒤집었다.

손흥민은 전반 45분 직접 득점을 올릴 기회를 잡았으나 수비수를 2명이나 제치고 골 지역 정면에서 날린 오른발 슈팅이 골대 위로 솟구쳐 아쉬움

을 삼켰다.

후반전 초반 사우샘프턴이 기세를 높였으나 문전에서 예리하지 못했고, 결국 토트넘이 또 한 번 골 맛을 봤다.

후반 16분 에메르송이 골 지역 왼쪽에서 시도한 땅볼 슈팅을 사우샘프턴 수비수 모하메드 살리수가 걷어낸다는 것이 문전으로 향해 자책골이 됐다.

2분 뒤에는 에메르송의 패스를 받은 콜루세브스키가 골 지역 오른쪽에서 왼발 슈팅을 반대편 골대에 꽂아 토트넘이 4-1까지 달아나며 승리를 예감케 했다.

여유가 생기자 안토니오 콘테 토트넘 감독은 베테랑 윙백 이반 페리시치, 센터백 클레망 랑글레, 미드필더 이브 비수스 등 이적생들을 대거 교체 투입하며 테스트에 나섰다.

/연합뉴스